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방식 변경 30년 사용 뒤 기부채납에서 개발업체가 소유권 갖고 운영

돈되는 상업시설 집중 우려

연내 착공은 여전히 불투명

지지부진했던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방식이 변경된다.

광주시는 8일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민간업체가 건설한 뒤 기부채납하는 기존 방식에서 개발업체가 소유와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초 이 사업은 회계법인 S건설 컨소시엄이 건설(Build)해 소유권(Own)을 가진 뒤 기부채납(Transfer)하는 BOT 방식이었다. 이번 변경 조치로 S건설 컨소시엄이 건설(Build)된 소유권(Own)을 갖고 운영(Operate)하는 BOO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부지매입 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연내 착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돼 송정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초 광주시는 민간업체가 30년 사용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협의했으나, 현행 공유재산 관리법상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이 경우 민간업체가 사업성 부족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어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지부진했

던 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같은 개발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개발업체가 이른바 돈이 되는 상업이나 업무시설 등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경우 특혜시비가 일 소지도 있다.

여기에 송정역 일대가 정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복합센터 세부 개발계획서도 미제출 상태다

광주시는 S건설이 세부 개발계획서를 3월까지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변수가 적지 않다. 부지를 소유한 코레일 측이 매각을 전제로 750만 규모의 환승주차장 무료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이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토부와 코레일, 광주시 등의 간담회 결과 주차장 무상제공은 어려울 것으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으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몇 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적극적인 조정애 나 서고 있는 만큼 부지협상은 물론 앞으로 행정절차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개발계획서 가 시에 제출되면 사업시행자 지정과 토 지매입,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늦어 도 올 연말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은 S건설 컨소시엄이 총사업비 2480억 원을 투입한다. / 최권익기자 cki@

野 “심상찮다”... 탄핵공조 재가동

3당 대표 회동 “국민들 불안 커져...3월 13일 이전 인용” 촉구

특검, 오늘 박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추후 일정 조율 ‘신중’

야 3당은 8일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시간을 연장하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으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박지 원·정의당 심상정 등 야 3당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 에 합의했다.

야 3당 대표들은 이날 “탄핵 심판이 늦 어지면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 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 현재의 정상적인 탄핵심판을 무력 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막중 한 책임이 현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특검수사에 새로운 수사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황 권한대행은 수

사기간 연장을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 특검법 9조4항에 의하면 시한 종료 3일 이 전 연재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규 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야 3당은 새누리 당의 반대로 개혁입법이 임시국회에서 추 진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게 흔들림 없이 개혁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 과 만나 황 권한대행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 을 경우 탄핵도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아 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 3당은 오는 11일 촛불집회는 각 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한편 탄핵심판 과정

및 특검 연장 등과 관련한 공조 계획이나 개혁입법 관련 내용은 원내지도부 간 조율 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무산됐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특검의 대통령 대 면조사 일정 유출 문제와 관련, 9일 대면 조사를 연기하고 추후 일정을 계속 조율하 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공식 통보했다.

한편, 특검팀 대면인인 이규철 특검보 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관련, “확 인해 드릴 수 없다”거나 “추후 말씀드리 겠다”며 말을 아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장병완 국회산자위원장, 조환의 한국전력사장 등이 8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개소한 '빛가람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전력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공동취재단>

UN본부서 5·18 기념식 열리나

기념재단, 37주년 맞춰 추진

UN한국대표부 동의 있어야

미국 뉴욕의 유엔(UN·국제연합) 본부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여는 계획이 추진돼 성사여부가 관심이다. <관련기사 2면>

5·18기념재단은 국제연대사업의 하나로 37주년 5·18 기념식을 유엔본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5·18재단은 유엔 비정부 협력사무소 위원이자 5·18재단 국제지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음비 토나(51) 광주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가 지난날 유엔 비정부기구(NGO) 담당

자를 만나 재단이 준비한 서류를 전달 했다고 전했다.

유엔 측은 “5·18재단은 유엔에 등록 된 NGO가 아니어서 서류접수가 불가 능하다”면서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의 동의를 행사 개최가 가 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에 재단은 지난 5일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에 행사개최 동의를 요청하는 전자우 편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재단이 유엔본부에서 개최를 추진 하는 5·18 기념식은 정부 기념식과는 별개로, 5·18단체가 세계의 심장부에서 ‘오월 정신’을 알리자는 취지로 준비한 국제연대 행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에너지 기업 300곳 육성”

나주 한전 본사에... 본격 운영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가 8일 나주에서 문을 열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빛가람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양희 미래부 장관, 조환의 한국전력 사장, 주형한 산업부 장관,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빛가람센터는 광주·전남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사동 2층에 마련됐으며, 1119㎡(340평)의 공간에 스타트업 입주공간과 회의실, 실험실 등을 갖췄다.

또 5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분야 기업 300곳을 육성한다는 게 한전의 목표다. 또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을 돕는 ‘K-에너지 스타트업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은 또 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에너지 분야 연구자들과 실험설비를 개방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자금 펀드’를 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빛가람센터는 지역 인재 육성도 도맡게 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남대, 목포대 등과 함께 에너지 분야 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한전 협력기업과 공동으로 ‘창업비즈니스 스쿨’을 개설하며 에너지 분야 취업 박람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한전 인재개발원은 직무교육을 받은 뒤

협력사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최재영의 ‘캄보디아’ ▶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제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